



두엄누리회보 제23호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2005년4월27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올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을 실시한 이후 생활 쓰레기는 11.4% 줄어든 반면 음식쓰레기는 13% 늘어 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매립장 활용 연장과 주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감소 됐으며, 분리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 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간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이 사료화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 최종 소비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수거되는 양만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어 자원화 추진 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퇴비나 사료로 최종 소비되지 못한 처리잔재물은 또 다른 쓰레기로 남아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이차 공해를 일으켜 실질적 자원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발표하였다.

실제 도시근교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들은 넓은 장소와 발효 기술

이 필요한 퇴비화 처리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사료화 처리시설로 등록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파쇄 탈수 후에는 거의 전량이 퇴비 공장으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가에서 기피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

그나마도 처리물량이 넘쳐나 탈수된 케익상태의 음식물 쓰레기는 정책 시행 초기 톤당 2만원 내외하던 처리 비용이 40,000안밖까지 오른 금액으로 퇴비공장 등으로 떠넘겨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는 대다수 돼지의 사료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돼지가 이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으면 고기에서 냄새가 나서 도축장 종계인들이 취급을 꺼릴뿐만 아니라 일반 배합사료를 먹인 돼지와 비교해 육질도 나쁘고 성장속도도 떨어져 수익성이 없으며 사육과정에서도 분뇨 배설량이 많아 분뇨처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많은 기피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료화 원료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암암리에 퇴비의 원료로 밀려드는 바람에 일부 업체에서는 처리비에 눈이 어두워 생산능력을 초월한 물량을 들여와 제대로 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팔아 불량비료의 유통을 증가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의 오염은 물론 업체 간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확립 되지 않아 심한 불협화음을 야기 시키고 있다.

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료로 재활용할 때에는 수거비용이나 처리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된 축산농가

그러나 일부 가축농가들은 탈수처리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거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료 사용과는 관계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가축분뇨에 혼합한 불량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농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하루 1.5톤 이하 생산에 해당되는 축산분뇨는 퇴비로 생산 판매해도 비료 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고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부정적 시각을 불러 일으켜 축분퇴비 전체에 소비 부진 내지는 사용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식물 찌꺼기나 축산분뇨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분명 좋은 자원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처리방법과 소비관계를 외면한채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과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자원화 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발생부터 수집, 운반과 처리, 최종 재활용되는 과정까지를 정확

히 파악하여 처리방법별로 전문화된 업체를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규정을 잘 정비하여 할 것이다.



물=43.26l, 단백질=11.62kg, 지방=1.05kg, 질소=2.31kg, 칼슘=1.27kg, 인=840g, 칼륨=170g, 염분=120g, 마그네슘=28.7g, 철분=5.8g, 아연=2g, 구리=0.1g, 망간=91mg, 옥소=30mg, 기타=70g 이것을 모두 현 시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것은 인간의 값어치를 구성 물질로 계산해본 것이다.

요즘 퇴비의 공정규격에 수분 규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수분규제는 1998년 농협이 농협 자체 자금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순수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수분을 50%이하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소비자의 구매요구와 법률적 제품규격은 다르다

그 당시에는 퇴비의 제조과정이 이론적으로 잘 밝혀져 있지 않아 여러 형태의 제품이 있으나 농협구매품에 한해 수분을 줄여 줄 것을 업체에 요구했던 것이다.

이런 사유로 시작된 것이 몇몇 업체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정규격 심의회에서 이론적 근거나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통과되어 수분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 수분규제는 공정규격 설정 이후에도 이런 허술한 절차로 인해 2년간 이라는 시간을

시행 유보시켰고 2004년부터야 시행되었다.

이 수분규제를 주장했던 학회나 업계의 관련자들이 가장 명분을 내세워 주장했던 부분은 수분이 많으면 소비자들인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란 이유에서였다.

결국 비료가 아닌 물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분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퇴비에 함유된 수분은 물이 아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분들의 주장이니 모두가 고개를 끄떡일 수밖에 없었고 농민을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에 고개 숙여 인사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비료가 아닌 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덕업자정도로 치부되었다.

참으로 웃지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수분이 적어야 좋은 퇴비가 된다는 근거는 아무 곳에도 없다.

그저 발효과정을 거쳐 유기물이 분해되면 발효열에 의해 수분이 다소 증발된다는 정도밖에는 참고 되지 않는 사안인 것이다.

옛 부터 우리 선조들이 두엄을 만들고 낙엽을 모아 퇴비를 만들어 쓸 때에도 퇴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퇴비를 건조시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퇴비를 만들기 위해 수분을 첨가시키는 일은 없다. 옛날에는 잘 썩지 않는 낙엽이나 볏짚, 보릿짚 등을 발효시키기 위해 축분을 섞어 축축히 만들었으나 요즘은 수분이 많은 축분을 발효시키기 위해 톱밥이나 왕겨를 섞는

다.

그렇게 하면 수분이 자연적으로 증발되어 줄어든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퇴비이다.

자연히 일정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퇴비인 것이다.

그러니 퇴비는 그냥 퇴비일 뿐이다. 수분이 어느만큼 유기물이 어느만큼 이렇게 분리해서 그 값어치를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퇴비에 함유된 수분은 그냥 물이 아니다. 구태여 분리하자면 액비와도 같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퇴비의 수분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전문가들은 후에 축산분뇨의 액비화에 관해서는 모두 관대했다.

특히 중금속 함유관계로 오히려 수분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란 생각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수분이 없으면 소비자가 손해라는 논리는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리는 고추를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구입한다.

그러면 말린 고추를 사지 않고 물고추를 사서 먹는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일까?

술도 알콜도수가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발효주를 먹는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것일까?

수분이 많으면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 또한 소비자가 손해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비의 제조 공정에는 수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일은 없다.

만약 그렇게 수분을 첨가해야 한다면 인건비 등으로 퇴비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것이다.

그러므로 퇴비에 함유된 수분은 물이 아니다 그자체가 퇴비인 것이다.

그리고 자칫 건조되고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좋은 퇴비라는 아주 잘못된고 위험한 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친환경 농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퇴비의 사용을 권장하는가? 화학비료의 기피는 고농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비마저도 유기물 함유량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유기물은 다시 고농도로 회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화학비료의 경제성과 편리성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도통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헛갈리기만 한다.

식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은 수분이 적다고해도 처리되지 않은 축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부터라도 퇴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학계에서 앞장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한다.

퇴비의 문제는 농업에서 사용되는 비료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 그 근본적

인 문제가 퇴비란 한 제품을 만드는 분야에 크게 좌우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이렇듯 우리가 때로는 더럽다고 느낄수도 있는 온갖 유기물이 분해된 흙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구성 물질 중에 60~70%차지하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다. 생명 그자체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퇴비에 함유된 수분은 물이

아닌 것이다 그냥 퇴비비료인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사 창립25주년행사 기념공연

협회 소식

농어민신문 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4월14일 한국마사회 신관람대 6층 컨벤션홀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김광원 농해수위 위원장,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 서정의 한농연 회장과 전국 농업경영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원 협회장이 석진희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등과 함께 기관, 단체에게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남면영농조합 전주영시장 정선군농협조합장취임

지난 4월 1일에는 강원도 정선에 소재한 남면영농조합 전주영시장이 정선군 농협조합장에 당선되어 취임식을 갖었다.